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관련성 고찰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柳延我¹ · 丁彰炫¹ *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Extraordinary Organs(奇恒之腑) and Eight Extra Meridians(奇經八脈)

Lyu Jeong-ah¹ · Jeong Chang-hyun¹ *

¹Dept. of Korean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bject : The Association between Extraordinary Organs(奇恒之腑) and Eight Extra Meridians(奇經八脈).

Objectives : This study research some special aspects of Extraordinary Organs and Eight Extra Meridians which differentiated from ordinary Organs and Meridian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xtraordinary Organs and Eight Extra Meridians.

Methods : First, researched classification standard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xtraordinary Organs through studying various chapters of HuangdiNeijing. Second, researched The Association between Extraordinary Organs and Eight Extra Meridians through studying on the origin of Eight Extra Meridians in HuangdiNeijing. Third, from accompanying researching the subject of Cheon-gye(天癸) and human body shape, draw synthetic hypothesis on the relationship among ordinary Meridians and Organs, muscles and skins of body shape, Extraordinary Organs and Eight Extra Meridians.

Results & Conclusions :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1. Extraordinary Organs afford background for shaping human body. This is same as the properties of the earth which afford background for shaping all creations.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xtraordinary Organs is intermediation and regulation between Ki(氣) of Five Viscera & six Bowels and shape of muscles & skins in human body.
2. The origin of Eight Extra Meridians could be found in HuangdiNeijing. The collateral Meridians of the Uterus and Epiglottis Meridian are specifically formulated to supplying for the Uterus or Epiglottis. From this we can draw The Association between Extraordinary Organs and Eight Extra Meridians, that is Eight Extra Meridians are specifically formulated to supplying for Extraordinary Organs.

3. The Cheon-gye(天癸) is doing significant function in Eight Extra Meridians supplying for Extraordinary Organs. Cheon-gye concerned to growth, secondary sexual characters, generative function, aging process. Theses are all concerned with the changing of human body shape. Cheon-gye urge to change the body shape with following the human life cycle.
4. Human body has vertical symmetry because preserve its shape from the gravitational force. Eight Extra Meridians place at the middle or flank axis of human body, thus do physiological function that assistant human body have vertical symmetry shape. The purpose of shaping vertical symmetry is securing space what the inner Twelve Regular Meridians and Five Viscera & six Bowels create there own physical changes. On the other hand the inner changes need deviation between left and right because of mobility and circulation of force. But human body change the shape in the process of growth, reproduction, aging. Eight Extra Meridians play role at time of these processing, thus they deeply concerned to human's life cycle and reproduction.
5. Eight Extra Meridians and Extraordinary Organs were named 'Extra' because of some special aspects which differentiated from ordinary Meridians and Organs. All they play role to have vertical symmetry shape of human body and maintain the shape, thus they deeply concerned to the change of human life cycle. These shaping maintaining and the change of human life cycle are very special aspects of human body. So they needed to differently cognize separate to the ordinary changes of Five Viscera & six Bowels and Twelve Meridians at inner space.

Key Words : Extraordinary Organs, Eight Extra Meridians, shape of human body, human life cycle, intermediation and regulation

I. 緒 論

『素問·五臟別論』에는 五臟과 六腑의 전체 특성을 대별하여 논하면서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의 여섯 가지를 특별히 '奇恒之腑'로 분류하였다.¹⁾ 이에 王氷을 비롯한 역대의 『內經』 연구자들이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라고 한 『素問·五臟別論』의

설명과 '奇恒' 및 '府'의 명칭을 중심으로 奇恒之腑의 간략한 개념을 형성하여 왔다.²⁾ 그러나 개념 상의 분류일 뿐 임상에서 奇恒之腑를 활용한 병리인식이나 진단 또는 처방의 적용 등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³⁾ 그러던 중 明清代 서양의 해부학 지식이 수

* 교신저자 : 丁彰炫, 大韓民國 서울 東大門區 回基洞 1番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jjeongch@Khu.ac.kr. Tel : 02-961-0337.

접수일(2014년 04월25일), 수정일(2014년 05월15일),

게재확정일(2014년 05월16일).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42.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

2)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75. "奇, 異也, 恒, 常也. 奇恒之腑, 即異于一般正常的腑. 其所以稱爲奇恒之腑, 有兩種解釋. 張介賓注, "凡此六者, 原非六府之數, 以其藏蓄陰精, 故曰地氣所生, 皆稱爲府." 馬蒔注, "其藏爲奇, 無所與偶." 王冰則又兼并兩說. 馬注"奇(ji)", 單數也, 因其與五臟無表裏相偶, 故謂之奇. 雖于義亦通, 然不若張注于義爲勝."

3) 方芳. 奇恒之腑의 歷史文獻及理論文化研究. 黑龍江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p.60. "從奇恒之腑病證治療的發展軌跡中, 可見奇恒之腑的病證多從五臟·六腑·經絡·氣血等來分析和治療, 而奇恒之腑卻未有從自身而論的獨立的辨證

입되어 큰 영향을 끼치면서 특히 ‘腦’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고, 이에 腦가 포함되어 있는 奇恒之腑에 대해서도 관심이 환기되었다.⁴⁾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여섯 가지를 하나의 분류로 묶은 기준에 대해서조차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⁵⁾

한편 『難經』 27難~29難에는 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陽維脈, 陰陽蹻脈의 여덟 맥을 十二經脈에 대별하여 특별히 ‘奇經八脈’으로 분류하고, 그 特性과 流注部位 및 病症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였다.⁶⁾ 이후 滑壽, 李時珍 등의 醫家들이 『難經』의 간략한 설명과 『內經』 중 각각의 脈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道家의 煉丹法 중 奇經八脈과 관련된 내용 등을 편집한 『十四經發揮』, 『奇經八脈考』 등의 저술을 남김으로써 奇經八脈 이론의 성립과 그 임상적용을 도모하였다.⁷⁾⁸⁾ 清代 葉天士는 奇經八脈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여 病理와 治法, 治療藥物 등을 개발하고 그 내용을 『臨證指南醫案』에 남겨 놓아 후대인이 학습할 수 있는 典據가 되고 있다.⁹⁾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은 그 명칭에 모두 ‘奇’자가 들어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臟腑 및 經脈과 다른 ‘特異性’을 그 存在의 根據로 삼는다.¹⁰⁾

論治體系.”

- 4) 張覺人, 丁念, 代鐵柱, 梁永凱, 從澤偉. 腦作為奇恒之腑生理特性的再思考. 遼寧中醫雜誌. 2009. 36(4). p.543. “基于中醫理論以五臟為核心, 故一提到腦就從屬於心, 似乎傳統中醫以心代腦; 專論于腦則屬於現代高級神經系統內容, 有鑒于此, 中醫學術尙少探討腦之生理特性者.”
- 5) 吳華強. “奇恒之腑”質疑. 安徽中醫臨床雜誌. 2002. 14(3). p.206. “綜上所述, 中醫基本理論的藏象學說中無需在五臟六腑之外再列奇恒之腑一類, 上述六者中, 膽為六腑之一, 其余五者分別歸屬於相應五臟的生理活動範疇中進行闡述, 應予簡化.”
- 6)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影印). 서울. 一中社. 1992. pp.53-58.
- 7) 滑伯仁 著. 承澹齋 校註. 校註十四經發揮. 上海衛生出版社. 1955(未詳). pp.75-81.
- 8) 李時珍. 奇經八脈考. 史世勤, 賀昌木 主編. 李時珍全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pp.3625-3660.
- 9) 清 葉天士 著. 徐靈胎 評. 臨證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672, 677, 690.
- 10) 王啓才. 奇經八脈的命名, 功能和特性. 南京中醫學院學報. 1988. 1. p.34. “奇經八脈是十二經脈以外具有特殊意義的八條經脈, 即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維脈, 陽維脈, 陰蹻脈, 陽蹻脈. 這和六臟六腑之外又有奇恒之腑具有同樣的意

두 가지 모두 우리 인체에 속하는 것이므로, 奇恒之腑나 奇經八脈은 五臟六腑 및 十二經脈의 일반적인 속성과 구분되는 우리 인체의 특수한 면을 따로 분류하여 인식할 필요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膽은 일반적인 六腑와 특수한 奇恒之腑에 동시에 속하는데, 奇恒之腑에 속하게 된 것은 水穀代謝에 관여하는 기능 외에 또 다른 특성에 의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은 우리 인체의 특수한 면을 구분하여 인식하기 위한 설정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에 일반 臟腑의 보편성으로부터 구분하여 奇恒之腑로 인식하려 했던 인체의 특수한 면과 일반 經脈의 보편성으로부터 구분하여 奇經八脈으로 인식하려 했던 인체의 특수한 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지 않은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相關성을 주요 논지로 하는 선행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臟象學』에 “奇經과 肝·腎 등의 臟과 女子胞·腦髓 등 奇恒之腑의 관계는 비교적 밀접하며, 그 중 女子胞·腦髓는 奇經과 직접 연결되어 상호간에 생리·병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¹¹⁾라고 하였다. 尹鍾和는 「奇經八脈에 관한 研究」에서 “奇恒之腑는 여러 器官의 機能을 有機的으로 統合하는 內分泌 및 神經系와 관계가 있으며, 趙는 奇經의 作用은 神經系와 內分泌機能의 交互作用과 關係가 있다하였다.”¹²⁾라고 하였으며, 王啓才는 「奇經八脈의 命名, 功能和特性」에서 “奇經八脈이 奇恒之腑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六臟六腑와도 광범위한 연계를 맺게 된다.”¹³⁾라고 하여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相關성을 간략히 언급한 바 있으나, 둘 사이의 相關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義.”

- 11) 朴贊國 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113.
- 12) 尹鍾和. 奇經八脈에 관한 研究. 東서의학. 1991. 16(4). p.53.
- 13) 王啓才. 奇經八脈의 命名, 功能和特性. 南京中醫學院學報. 1988. 1. p.35. “既與奇恒之腑關係密切, 又與六臟六腑息息相關.” p.36. “再從奇恒之腑與六臟六腑的關係來看, 奇經八脈與六臟六腑之間也有着不可分割的聯系.”

本稿에서는 먼저 『黃帝內經』 여러 편의 내용을 다양하게 고찰하여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의 여섯 가지를 ‘奇恒之腑’로 묶어 분류한 기준과 이들의 생리적 특성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黃帝內經』 중 奇經八脈의 基源으로 보이는 脈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관계를 설정하고,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된 ‘天癸’ 및 ‘形態’의 문제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五臟六腑와 十二經脈과 筋皮肉 및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本 論

1. 奇恒之腑의 분류 기준과 생리적 특성

1) 奇恒之腑의 분류 기준

五臟六腑를 중심으로 한 일반 臟象學 체계 안에서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의 여섯 가지는 그 특성의 같고 다름을 논하기 이전에, 인체에 대한 분류 層差에 있어서 그 위치를 달리한다. 즉 사람의 형태를 논하여 臟腑, 經絡, 九竅 등으로 層差를 구분할 때 膽과 女子胞는 ‘臟腑’의 層差에 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脈과 骨과 髓는 筋, 肉, 皮毛와 동급의 層差에 속한다. 예를 들어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東西南北中央의 五行歸類를 事物과 人體에 層差別로 적용한 문장에서 脈은 南方 火의 身體에 있어서의 歸類物이고, 骨은 北方 水의 身體에 있어서의 歸類物이다. 또 髓는 北方 水의 歸類物 중 骨과 함께 腎의 産物에 속한다.

南方이 熱을 생하면 熱은 火를 생하고 火는 쓴맛을 생하고 쓴맛은 心을 생하며 心은 血을 생하고 血은 脾를 생하니, 心은 혀를 주관한다. 그 하늘에 있어서는 熱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火가 되며 身體에 있어서는 脈이 되고 臟에 있어서는 心이 되며 色에 있어서는 赤色이 되고 音에 있어서는 徵音이 되고 聲에 있어서는 웃음소리가 되고 變動에 있어서는 근심이 되고 竅에 있어서는 혀가 되고 맛에 있어서는 쓴

맛이 되며 情志에 있어서는 기쁨이 된다.¹⁴⁾

北方이 寒을 생하면 寒은 水를 생하고 水는 짠맛을 생하고 짠맛은 腎을 생하며 腎은 骨과 髓를 생하고 髓는 肝을 생하니, 腎은 귀를 주관한다. 그 하늘에 있어서는 寒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水가 되며 身體에 있어서는 骨이 되고 臟에 있어서는 腎이 되며 色에 있어서는 黑色이 되고 音에 있어서는 羽音이 되고 聲에 있어서는 신음 소리가 되고 變動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되고 竅에 있어서는 귀가 되고 맛에 있어서는 짠맛이 되며 情志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된다.¹⁵⁾

한편 腦에 대해서는 『靈樞·海論』에 “髓海”라고 하거나 『素問·五藏生成篇』에 “모든 髓는 다 腦로 귀속”된다고 하여 髓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였다.¹⁶⁾¹⁷⁾ 이는 髓와 腦가 모두 신체를 이루는 구성 물이되, 동시에 腦는 髓가 모여 있는 곳 즉 髓를 포함하는 신체 조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시 髓와 腦 사이에 인체 분류에 있어서의 層差가 발생한다.¹⁸⁾ 그리고 임상에 있어서 膽은 肝木에 腦, 髓, 骨은 腎水에 脈은 心火에 歸屬하고, 女子胞 또한 腎水에 귀속하여 辨證하고 치료할 수 있다.

1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4.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心生舌. 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體爲脈, 在藏爲心, 在色爲赤, 在音爲徵, 在聲爲笑, 在變動爲憂, 在竅爲舌, 在味爲苦, 在志爲喜.”

1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4.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髓生肝, 腎主耳. 其在天爲寒, 在地爲水, 在體爲骨, 在藏爲腎, 在色爲黑, 在音爲羽, 在聲爲呻, 在變動爲慄, 在竅爲耳, 在味爲鹹, 在志爲恐.”

1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74.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

1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9. “諸髓者, 皆屬於腦.”

18) 張效霞, 楊慶臣. 奇恒之腑考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3. 26(1). p.23. “《靈樞·海論》曰:‘腦爲髓之海’;《素問·脈要精微論》云:‘骨者髓之腑’. 縱然‘凡藏物者皆可名藏名腑’, 又怎能將髓與腦, 骨并論而稱爲‘腑’呢?”

19)20)21) 그러므로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의 여섯 가지를 다른 臟腑 및 身體部位와 따로 구분해서 인식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²²⁾

그러나 『素問·五臟別論』에서 岐伯은 이렇게 서로 다른 層差의 신체부위들을 ‘奇恒之腑’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구분하였다. 黃帝가 方士들로부터 들은 臟腑 구분에 관한 여러 가지 醫論들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岐伯은 臟腑 구분에 관한 醫論을 奇恒之腑, 傳化之腑, 五臟의 세 가지 부류로 대별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奇恒之腑’의 醫論은 당시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臟腑 구분에 관한 醫論들 중 정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학설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黃帝가 물어 말하기를, 내가 方士에게 들으니 혹은 腦髓를 藏으로 여기고 혹은 腸胃를 藏으로 여기거나 또는 府로 여기니, 거듭 상반됨을 과감히 질문하여도 모두 스스로 옳다고 이릅니다. 그 道를 알지 못하겠으니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이 여섯 가지는 地氣가 생한 바로, 모두 陰部에 감추어져 있어서 땅을 본뵈습니다. 그러므로 간직하되 비우지 않으니 이름을 ‘奇恒之腑’라 일컫습니다.²³⁾

무릇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이 다섯 가지는 天氣가 생한 바로, 그 氣가 하늘을 본뵈습니다. 그러므로 비우되 간직하지 않으니, 이들은 五臟의 濁氣를 받아 이름을 ‘傳化之腑’라 일컬으며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운반하여 비워내는 것입니다.²⁴⁾

이 문장에 대한 王冰의 주석을 보면 王冰 역시 奇恒之腑 學說을 당시 方士들의 臟腑에 대한 여러 醫論들 중 하나라고 여겼으며, 奇恒之腑 학설 뿐 아니라 『內經』 여러 편에 걸쳐 臟腑에 관한 상호 모순된 학설이 존재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方士는 방술을 밝게 깨친 선비를 말한 다. 말에 상호 臟腑로 여기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經文 중에도 오히려 있다. 『靈蘭秘典論』에는 臟과 胃를 十二臟의 서로 부리는 次序로 만들었으며, 『六節藏象論』에는 十一臟이 膽에서 ‘取決’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五藏生成篇』에는 五臟의 象을 類로써 미루어나가며 五臟의 상호 소리 내는 것을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腦와 髓를 臟으로 여기는 것은 응당 『別經』에 두어야 한다.²⁵⁾

그런데 『素問·示從容論』에 앞의 奇恒之腑 및 傳化之腑와 비슷한 서술방식으로 臟腑 및 人體部位를

19) 徐愛良, 王春榮, 嚴喧喧. 論奇恒之腑辨證. 湖南中醫藥大學學報. 2013. 33(1). p.57. “腦髓骨脈膽女子胞(男子精室)爲奇恒之腑, 髓骨在腎病辨證, 脈在心病辨證, 膽在六腑病辨證中已討論 一중략- 腦; 神魂魄意志五種不同神的表現歸于腦, 又分屬於五臟, 其中特別與心肝關係密切, 尤以腎爲最.”

20) 吳華強. “奇恒之腑”質疑. 安徽中醫臨床雜誌. 2002. 14(3). p.206. “上述六者中, 膽爲六腑之一, 其餘五者分別歸屬於相應五臟的生理活動範疇中進行闡述, 應予簡化.”

21) 張覺人, 丁念, 代鐵柱, 梁永凱, 從澤偉. 腦作爲奇恒之腑生理特性的再思考. 遼寧中醫雜誌. 2009. 36(4). p.544. “鑒于諸髓者皆屬於腦, 腦爲髓之海, 故古代方家有言益腎生精填髓者, 也有直接填髓益腦者.”

22) 吳華強. “奇恒之腑”質疑. 安徽中醫臨床雜誌. 2002. 14(3). p.206. “綜上所述, 中醫基本理論的藏象學說中無需在五臟, 六腑之外再列奇恒之腑一類.”

2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42. “黃帝問曰, 余聞方士, 或以腦髓爲

藏, 或以腸胃爲藏, 或以爲府, 敢問更相反, 皆自謂是, 不知其道, 願聞其說. 岐伯對曰,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

2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42.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寫而不藏, 此受五藏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輸寫者也.”

25) 王冰 編著. 高保衡 校. 補注黃帝內經素問(影印). 서울: 一中社. 1993. p.39. “方士, 謂明悟方術之士也. 言互爲藏府之差異者, 經中猶有之矣. 靈蘭秘典論, 以藏胃爲十二藏相使之次, 六節藏象論, 云十一藏取決于膽, 五藏生成篇, 云五藏之象, 可以類推, 五藏相音, 可以意識, 此則互相矛盾. 腦髓爲藏, 應在別經.”

분류한 문장이 보인다. 이 문장에 대해 王冰은 『素問·五臟別論』의 奇恒之腑와 傳化之腑에 관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以經釋經의 방식으로 注釋하였다.²⁶⁾

黃帝가 편안히 앉으셔서 雷公을 불러 물어 말하기를, 그때가 方術을 전수받고 서적을 외운 것과 능히 雜學을 열람하여 본 것이 ‘比類’의 통합하는 도리에 미치었으니, 나를 위하여 그때의 잘하는 바를 말하라. 五臟六腑의 膽, 胃, 大小腸, 脾, 胞, 膀胱, 腦, 髓, 눈물, 타액, 극하는 것, 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슬퍼하는 것은 水氣가 좇아 행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사람이 생한 바이다.²⁷⁾ 다스림이 지나치거나 실수하는 것에 그때가 힘써 밝게 알도록 하여야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만약 능히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이 원망하는 바가 된다.²⁸⁾

여기서 거론한 膽, 胃 등 14가지는 신체부위 뿐 아니라 ‘涕’, ‘唾’의 體液 및 ‘悲’, ‘哀’의 情志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奇恒之腑에서보다 더욱 심한 層差를

보인다. 따라서 이 문장을 완전한 錯簡이나 衍文으로 보아서 배제하지 않는 한 臟腑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그 뜻을 취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의 범주에 두어 거론한 14가지 인체에 존재하는 것들의 분류기준은, 체내 ‘水氣’의 흐름과 관계가 있으며 「示從容論」의 논지를 고려했을 때 膈膜 위에 있는 心, 肺 보다 膈膜 아래에 있는 脾, 肝, 腎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²⁹⁾ 또한 “사람이 생한 바”의 “此皆人之所生”은 「五臟別論」의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및 “此五者, 天氣之所生也”와 對句가 되는 구절로 보인다. 「五臟別論」에서 “地氣之所生也”는 문장의 뒤쪽에서 “藏於陰而象於地”와 연결되고 “天氣之所生也”는 문장의 뒤쪽에서 “其氣象天”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示從容論」의 “人之所生”의 경우에도 ‘象人事’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象人事’의 가설까지 적용시켜 「示從容論」에 언급한 14가지 인체에 존재하는 것들의 분류기준을 유추해보면, 체내 ‘水氣’의 흐름과 관계가 있고 격막 아래 脾, 肝, 腎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人事를 본떠서 有情한 특성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雷公과 같은 상당한 고수라 하더라도 그 진단에 혼란을 초래하기 쉬워서, ‘比類’에 더하여 ‘從容’의 診法을 터득하여야 그 다스림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 「示從容論」의 주제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內經』에는 각 편의 주제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臟腑 및 신체부위 또는 인체요소들을 분류하여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그 분류기준은 臟象學說의 일반적인 層差 구분은 물론 五行歸類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범주를 정의한 문장과 그 편의 주제 및 다른 편의 비슷한 형식의 문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그 분류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古人이 臟腑에 대한 비상식적인 분류방식을 남겨 둔 것은 그러한 분류를 통하여 인체에 대한 다른 차원의 관점을,

26) 王冰 編著. 高保衡 校. 補注黃帝內經素問(影印). 서울. 一中社. 1993. p.254. “五臟別論, 黃帝問曰, 余聞方士, 或以腦髓爲藏, 或以腸胃爲藏, 或以爲府, 敢問更相反, 皆自謂是, 不知其道, 願聞其說. 岐伯曰,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寫而不藏, 此受五藏濁氣, 故名曰傳化之府. 是以古之治病者, 以爲過失也.”

27) “此皆人之所生”에 대하여 吳昆은 “모두 사람이 힘입어 살아가는 바”로 주석하였다. 여기서는 『五臟別論』의 原文을 인용한 王冰의 주석을 좇아 “地氣之所生”, “天氣之所生”과의 待對관계로 해석하였다. 山東中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240. “水所從行: 吳昆注: 水, 謂五液也, 此皆人之所生, 指膽胃以下十四端而言. 言五臟六腑七情五液, 皆人所賴以生.”

2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黃帝燕坐, 召雷公而問之曰, 汝受術誦書者, 若能覽觀雜學, 及於比類, 通合道理, 爲余言子所長, 五臟六府, 膽胃大小腸, 脾胞膀胱腦髓, 涕唾哭泣悲哀, 水所從行, 此皆人之所生, 治之過失, 子務明之, 可以十全, 卽不能知, 爲世所怨.”

29) 『素問·示從容論』의 이어지는 문장에서 肝, 腎, 脾 세 臟의 病을 ‘從容’하는 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관점을 알게 함으로써 인체를 보다 완벽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치료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의 여섯 가지를 奇恒之腑로 분류하고 “地氣之所生也”, “藏於陰而象於地”라고 분류기준을 제시한 학설은 인체에 관해 어떠한 면을 말하고 있는가.

우선 ‘奇恒’의 의미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두 가지는, 첫째 ‘奇’의 홀수라는 뜻에 주목하여 五臟六腑처럼 臟腑相合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풀이한 경우와 둘째 ‘恒’의 일반이라는 뜻에 주목하여 특이하고 기이한 府라고 풀이한 경우이다. 『素問注釋滙粹』에서는 馬蒔와 張介賓을 각각 그 대표적인 주석가로 들었는데, 馬蒔와 같은 주석은 臟과 腑가 表裏로 相合관계를 형성한다는 상식적인 臟腑개념을 이미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奇恒’의 의미는 臟腑相合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기 보다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성을 가진다는 뜻으로 푸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奇는 ‘다르다’는 뜻이고, 恒은 ‘정상’이라는 뜻이다. 奇恒之腑는 곧 ‘일반 정상적인 腑와 다르다’는 뜻이다. ‘奇恒之腑’로 칭하는 까닭에는 두 종류의 해석이 있다. 張介賓은 주석하기를, 무릇 여섯 가지는 원래 六府의 가짓수가 아니지만 陰精을 간직하고 축적하므로 “地氣가 생하는 바”로 일컬고 모두 ‘府’로 칭하였다. 馬蒔는 주석하기를, 그 藏이 奇數로서 더불어 짝하는 바가 없다. 王冰은 또한 (張介賓과 馬蒔) 두 가지 설을 겸하여 아올렸다. 馬蒔의 주석에서 ‘奇’는 單數라는 뜻이니, 五臟과 더불어 表裏의 상호 配偶가 없기 때문에 ‘奇’로 말한 것이다. 비록 뜻이 또한 통하나, 張氏 주석이 의미에 있어서 뛰어난 것만 같지 못하다.³⁰⁾

다음으로 『素問·陰陽應象大論』 및 『靈樞·海論』에서 살펴보았듯이 骨은 水의 身體에 있어서의 歸類物이고 脈은 火의 身體에 있어서의 歸類物이며, 腦는 四海의 하나인 ‘髓海’로서 모두 사람 신체의 형태가 갖추어지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즉 腦와 髓가 있어야 骨이 형성될 수 있고, 骨과 脈이 구성되어야 나머지 신체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만물이 형태를 갖추어지도록 바탕을 제공하는 땅의 속성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地氣之所生”과 “藏於陰而象於地”를 “그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면서 만물이 형태를 갖추도록 그 바탕을 제공하는 땅의 속성을 본떴다”는 의미로 풀이하면 奇恒之腑의 분류기준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 女子胞의 경우에는 그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면서 사물이 형태를 갖추도록 바탕을 제공한다는 땅의 象을 그대로 실현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女子胞가 태아를 길러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속성에 대해 王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胞가 비록 出納을 한다고는 하지만, ‘納’ 하면 精氣를 받아들이고 ‘出’ 하면 形態와 容貌로 변화시켜 내보내니, 形態와 容貌가 나옴은 변화를 다하여 탄생함을 이르는 것으로, 出納의 용도를 (水穀을 출납하는) 六府와 달리한다. 그러므로 “간직되 비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奇恒之腑’로 이름 하여 부른다.³¹⁾

王冰은 女子胞가 精氣를 받아들이고 形態와 容貌로 변화시켜 내보낸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은 곧 胎兒의 발생과정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胎

1982. p.175. “奇, 異也, 恒, 常也. 奇恒之腑, 卽異于一般正常的腑. 其所以稱爲奇恒之腑, 有兩種解釋. 張介賓注, “凡此六者, 原非六府之數, 以其藏蓄陰精, 故曰地氣所生, 皆稱爲府.” 馬蒔注, “其藏爲奇, 無所與偶.” 王冰則又兼并兩說. 馬注“奇(ji)”, 單數也, 因其與五臟無表裏相偶, 故謂之奇. 雖于義亦通, 然不若張注于義爲勝.”

31) 王冰 編著. 高保衡 校. 補注黃帝內經素問(影印). 서울. 一中社. 1993. p.39. “胞雖出納, 納則受納精氣, 出則化出形容, 形容之出, 謂化極而生然, 出納之用, 有殊于六府. 故言藏而不寫, 名曰奇恒之腑也.”

30)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兒의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頭腦와 脊髓로 된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발생한 후에 骨과 脈이 발생하여 차례로 형태를 갖추어 나간다.³²⁾³³⁾ 『靈樞·經脈』에 사람의 발생과정을 서술한 문장이 보이는데, 腦髓, 骨, 脈이 筋, 肉, 皮膚, 毛髮에 앞서 발생하여 사람 신체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황제가 말하기를, 사람이 처음 생함에 먼저 精을 이룬다. 精을 이루어 腦와 髓를 생하면 骨이 근간을 이루고 脈이 순환을 이루며, 筋은 굳건히 하고 肉은 담장이 되며 皮膚가 단단히 해서 모발이 자라난다. 곡식이 胃로 들어감에 脈道가 통하게 되어 血과 氣가 이에 행한다.³⁴⁾

문장 중 ‘精’을 이루는 것은 형체가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생이 시작될 수 있는 元精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므로 腦와 髓, 骨, 脈이 筋, 肉, 皮膚, 毛髮보다 앞서 발생하고 동시에 이들 형태가 갖추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奇恒之腑의 분류 기준을 이와 같이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질 수 있게 바탕을 제공하는 속성’으로 귀납하였을 때 膽에 그와 같은 속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靈樞·本藏』에서 爪甲과 膽의 관계를 서술한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형태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藏象의 外候를 말한 것이다.³⁵⁾ 다음으로 『素問·氣厥論』에서 胃에서 膽으로

熱을 옮기고 膽에서 腦로 熱을 옮김으로써 鼻淵이 된다는 서술이 있는데, 이것은 病理를 말한 것이긴 하지만 膽과 腦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것으로 膽의 奇恒之腑로서의 속성을 고찰하는 데 참고할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³⁶⁾ 비슷한 예로 『靈樞·經脈』에는 膽이 ‘骨所生病者’를 주관한다고 하였다.³⁷⁾ 사람의 배아가 발생하는 先天의 과정에서는 腦와 髓가 가장 먼저 발생하여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바탕이 되지만, 이미 발생을 마친 後天의 상황에서는 骨이 사람 형태의 가장 바탕이 된다. 또 八會穴 중 筋會인 陽陵泉과 髓會인 絕骨은 모두 足少陽膽經의 소속 穴이니, 이로써 膽이 사람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그러므로 ‘骨所生病’을 주관하며, 筋會인 陽陵泉과 髓會인 絕骨을 소속 穴로 하는 膽은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도록 바탕을 제공한다’는 奇恒之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奇恒之腑의 생리적 특성

『素問·六節藏象論』에는 精神이 머무르는 肝, 心, 肺, 腎의 四臟과 水穀代謝에 관여하는 脾를 포함한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의 臟腑를 대별하여 藏象을 서술한 후 “凡十一臟, 取決於膽也”라고 하여 膽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³⁹⁾ 이 구절에 대해서

32) Cecie Starr, Ralph Taggart, Christine Evers 외 1인 공저. 고병문, 김경식, 김무열 외 14인 공역. (Starr) 생명과학 :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 서울. 월드사이언스. 2012. pp.772-773.

33) 강성구, 강신성, 백상기 외 5인 공저. 인체생물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2004. p.277.

3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74. “黃帝曰,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

3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5. “肝應爪, 爪厚色黃者, 膽厚, 爪薄色紅者, 膽薄. 爪堅色青者, 膽急. 爪濡色赤者, 膽緩. 爪直色白無紋者, 膽直, 爪惡色黑多紋者, 膽結也.”

3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40. “胞移熱於膀胱, 則溼溺血. 膀胱移熱於小腸, 鬲腸不便, 上爲口糜. 小腸移熱於大腸, 爲虛瘕爲沈. 大腸移熱於胃, 善食而瘦入, 謂之食亦. 胃移熱於膽, 亦曰食亦. 膽移熱於腦, 則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傳爲衄膿目. 故得之氣厥也.”

3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2. “膽足少陽之脈, -중략-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 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頰痛, 目銳皆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瘦, 汗出振寒, 虛, 胸脇肋髀膝外至脛, 絕骨, 外果前及諸節皆痛, 小指次指不用.”

38)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최철한 외 5인 옮김. 對譯 東醫寶鑑. 경남 하동군 화개면.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351.

3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6-37. “帝曰, 藏象何如. 岐伯曰,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其華在毛, 其充在皮, 爲陽中之太陰, 通於秋氣. 腎者, 主蘊封藏之本, 精之處

는 後人이 덧붙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⁴⁰⁾ 그러나 醫學史 상 『黃帝內經』에 대한 최초의 주석자인 王冰이 「六節藏象論」의 이 구절을 「內經」 중의 臟腑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설사 後人이 增入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王冰이 『內經』을 주석할 당시에 이미 原文으로 편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朴贊國은 “凡十一臟, 取決於膽也”에 대하여, 膽은 ‘中正之官’으로 臟과 腑를 매개하는 연결통로가 되고 陰과 陽에 모두 통해 있어 체내 陰陽의 평형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膽은 肝의 腑로서 五臟과 六腑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가 되며 肝은 五臟의 맨 앞에 있는 臟으로 謀慮를 주관하므로, 체내 활동이 五臟(陰)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질지 六腑(陽)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질지가 이 두 臟腑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취지의 注釋을 하였다.⁴²⁾ 이 注釋은 五臟과 六腑의 활동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膽이 인체의 陰陽 평형을 조절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자세히 논하고 있어서 奇恒之腑로서의 膽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에 참고할 바가 많다고 사료된다.

앞에서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로 구성된 奇恒之腑의 분류기준을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질 수 있게 바탕을 제공하는 속성’으로 귀납하고,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각각이 이 분류기준을 만족시키는지 고찰하였다. 腦, 髓, 骨, 脈은 사람의 배아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여 나머지 형태가

갖추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며, 女子胞는 바로 이러한 발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며, 膽은 ‘骨所生病’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筋會인 陽陵泉과 髓會인 絕骨을 소속 穴로 가짐으로써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바탕을 제공한다는 奇恒之腑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膽의 경우 腦, 髓, 骨, 脈, 女子胞가 사람이 발생하는 先天의 과정 중에 그 작용이 뚜렷이 드러났던 것과 다르게, 이미 형태 발생을 마치고 난 後天의 과정 중에 骨, 筋, 髓 등에 작용하여 사람 형태의 바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미 형태 발생을 마치고 난 後天 세계에는 主宰者인 心을 비롯하여 五臟과 六腑가 인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五臟과 六腑의 활동 영역에는 氣血, 精神 뿐 아니라 인체의 형태도 물론 포함된다. 따라서 형태 발생이 끝난 後天 세계에 있어서 膽을 비롯한 奇恒之腑가 인체 형태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五臟六腑가 형태를 五行歸類의 방법으로 歸屬하고 滋養하는 작용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奇恒之腑의 생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內經』에서 사람의 형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靈樞·壽夭剛柔』에

黃帝가 伯高에게 물어 말하길, 내가 形과 氣가 병드는 先後를 들으니 밖과 안으로 응하는 것이 어떠한가?

伯高가 답하여 말하길, 風과 寒은 形을 상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성냄과 노함은 氣를 상하니, 氣는 臟을 상함에 이에 臟을 병들게 하고 寒은 形을 상함에 이에 形을 응하게 하며 風은 筋과 脈을 상함에 筋과 脈이 이에 응하니, 이것이 形과 氣가 밖과 안으로 서로 응하는 것입니다.⁴³⁾

也, 其華在髮, 其充在骨, 爲陰中之少陰, 通於冬氣.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 其味酸, 其色蒼, 此爲陽中之少陽, 通於春氣.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唇四白,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凡十一臟取決於膽也.”

4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7. “凡十一臟取決於膽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後人의 所增인 듯하다.(郭霽春)”

41) 王冰 編著. 高保衡 校. 補注黃帝內經素問(影印). 서울. 一中社. 1993. p.39. “方士, 謂明悟方術之士也. 言互爲藏府之差異者, 經中猶有之矣. 靈蘭秘典論, 以藏胃爲十二藏相使之次, 六節藏象論, 云十一臟取決於膽, 五藏生成篇, 云五藏之象, 可以類推, 五藏相音, 可以意識, 此則互相矛盾爾. 腦髓爲臟, 應在別經.”

42) 洪元植 監修. 朴贊國 著.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上.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p.176-177.

4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57. “黃帝問於伯高曰, 余聞形氣, 病之先後外內之應, 奈何. 伯高答曰, 風寒傷形, 憂恐忿怒傷氣, 氣傷藏, 乃病藏, 寒傷形, 乃應形. 風傷筋脈, 筋脈乃應, 此形氣外內之相應也.”

라고 하여, 形과 氣를 각각 形, 筋, 脈과 臟에 대별하고 이를 다시 風寒의 邪氣와 憂恐忿怒의 情志에 대별하였다. 이것은 인체 구조와 생리, 병리를 ‘形’ 중심의 形, 筋, 脈과 ‘氣’ 중심의 五臟으로 대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같은 편의 黃帝와 少師의 문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黃帝가 少師에게 물어 말하길, 내가 듣기를 사람이 남에 단단하거나 무른 경우가 있으며 약하거나 강한 경우가 있으며 짧거나 긴 경우가 있으며 陰이거나 陽인 경우가 있다하니, 그 구체적인 것을 듣고자 합니다.

少師가 답하여 말하길, 陰 가운데에 陰이 있고 陽 가운데에 陽이 있으니, 陰과 陽을 살펴 알면 자침하는 데에 방도를 들 수 있습니다. 病을 얻어 시작되는 바를 자침함에 原理가 있으니, 病의 실마리를 삼가 헤아려서 時와 더불어 서로 응하게 하고, 안으로는 五臟六腑에 합하고 밖으로는 筋骨皮膚에 합하니, 이러한 까닭에 안에도 陰陽이 있고 밖에도 또한 陰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五臟이 陰이 되고 六腑가 陽이 되며, 밖에 있는 것은 筋骨이 陰이 되고 皮膚가 陽이 됩니다. -중략- 그러므로 이르길, 病이 陽에 있는 것은 ‘風’으로 명하여 부르니, 病이 陰에 있는 것은 ‘痺’로 명하여 부르며 陰陽이 모두 병든 것은 ‘風痺’로 명하여 부릅니다. 병에 形이 있고 아프지 않은 것은 陽의 類이며 形이 없고 아픈 것은 陰의 類입니다. 形이 없고 아픈 경우는 그 陽은 온전하나 陰이 상한 것이니, 그 陰을 급히 다스리되 그 陽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形이 있고 아프지 않은 경우는 그 陰은 온전하나 陽이 상한 것이니, 그 陽을 급히 다스리되 그 陰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陰陽이 모두 動하게 되면 形이 있기도 하고 形이 없기도 하되 가슴 답답함이 더해지는데 ‘陰이 그 陽을 이김’

으로 명하여 부르니, 이를 ‘不表不裏’라 이르며 그 形이 오래가지 못합니다.44)

이 문장에서는 五臟六腑를 內로 筋骨皮肉을 外로 설정하고, 內의 五臟六腑가 병든 것을 ‘痺’라 하고 病形이 없으며 아프다고 하였으며 外의 筋骨皮肉이 병든 것을 ‘風’이라 하고 病形이 있으며 아프지 않다고 대별하였다. 또한 內外的 陰陽 즉 五臟六腑와 筋骨皮肉이 모두 병든 것을 ‘風痺’라 하고 病形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되 心煩이 있으며, 그 形 즉 病者의 筋骨皮肉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靈樞』의 刺法에서 氣를 위주로 하는 五臟六腑가 병든 것과 形을 위주로 하는 筋骨皮肉이 병든 것을 구분하여 대치하였으며, 五臟六腑의 氣病이 筋骨皮肉의 形病에까지 轉移된 경우를 ‘表裏兼病’이 아닌 ‘不表不裏’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論者は 『靈樞·壽夭剛柔』의 이 문장에서 인체의 形과 관련된 膽을 비롯한 奇恒之腑들이 五臟六腑와 구분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인체의 내부에 있는 五臟六腑는 五行歸類를 통하여 인체의 외부에 있는 筋骨皮肉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歸屬하고 滋養하고 지배한다. 그러나 인체 내부에 있는 五臟六腑의 氣를 인체 외부에 있는 筋骨皮肉의 形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사이를 연결하고 매개하며, 동시에 氣를 形으로 또는 形을 氣로 쉽게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12經脈과 15絡脈을 포함한 ‘脈’임을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4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57. “黃帝問於少師曰, 余聞人之生也, 有剛有柔, 有弱有強, 有短有長, 有陰有陽, 願聞其方. 少師答曰, 陰中有陰, 陽中有陽, 審知陰陽, 刺之有方, 得病所始, 刺之有理, 謹度病端, 與時相應, 內合於五臟六腑, 外合於筋骨皮膚, 是故內有陰陽, 外亦有陰陽. 在內者, 五臟爲陰, 六腑爲陽. 在外者, 筋骨爲陰, 皮膚爲陽. 故曰, 病在陰之陰者, 刺陰之榮輸, 病在陽之陽者, 刺陽之合. 病在陽之陰者, 刺陰之經, 病在陰之陽者, 刺絡脈. 故曰, 病在陽者, 命曰風, 病在陰者, 命曰痺, 陰陽俱病, 命曰風痺. 病有形而不痛者, 陽之類也, 無形而痛者, 陰之類也. 無形而痛者, 其陽完而陰傷之也, 急治其陰, 無攻其陽. 有形而不痛者, 其陰完而陽傷之也, 急治其陽, 無攻其陰. 陰陽俱動, 乍有形, 乍無形, 加以煩心, 命曰陰勝其陽. 此謂不表不裏, 其形不久.”

腦가 수행하는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 사람의 정신활동인 神明은 전통적으로는 心의 고유한 기능으로 여겨져 오다가 근대 서양의학의 腦에 대한 발달된 지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 정신활동의 근원을 心으로 볼 것인지 腦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45)46)47) 腦는 筋骨皮肉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신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心을 비롯한 五臟의 情緒와 意志를 사람의 형태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따라서 ‘腦’ 역시 인체 안의 五臟六腑와 인체 밖의 筋骨皮肉을 연결하여 매개하는 동시에 氣를 形으로 形을 氣로 전환하는 장치로서의 奇恒之腑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髓’는 腦와 骨에 포함된 것으로 오늘날의 腦髓, 脊髓, 骨髓 뿐만 아니라 신경까지 아우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인체 내의 五臟六腑와 인체 외의 형태를 연결하여 매개하는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腦기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骨은 그 자신이 뚜렷한 形을 갖추고 있어서 筋骨

皮肉으로 구분되는 형태의 일부가 되는 동시에 筋과 肉과 皮膚가 형태를 갖추어 붙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물질 기반이 된다. 또한 그 속에 髓를 간직하여 筋皮肉을 滋養하고 지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脈들이 骨을 중심으로 분포하므로, 五臟六腑가 脈을 통해 형태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五臟六腑의 바깥을 감싸고 있으며, 筋皮肉의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五臟六腑와 형태를 연결하고 매개하며, 그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람이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바탕이 된다는 奇恒之腑의 속성 및 분류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

膽은 앞서 『素問·六節藏象論』 “凡十一臟，取決於膽也”에 대한 朴贊國의 注釋에서 膽이 인체의 陰陽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 것에 주목하였다. 朴贊國 注釋에서 언급한 陰陽 평형은 五臟과 六腑 사이의 매개 기능이지만, 『靈樞·壽夭剛柔』의 陰陽 개념으로 미루어볼 때 “凡十一臟，取決於膽也”의 膽의 기능은 인체의 五臟六腑(陰)와 筋皮肉의 形(陽) 사이를 매개하는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靈樞·壽夭剛柔』에 五臟六腑의 병이 筋皮肉의 형태에 轉移되어 인체의 內外가 모두 병든 경우를 ‘表裏兼病’이라 하지 않고 ‘不表不裏’라 이르고 病者의 形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예후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不表不裏’는 ‘半表半裏’라는 少陽 부위에 있는 膽의 별칭과 닮았으며, 더 나아가 五臟六腑와 筋皮肉의 형태 외에 인체에 제3의 부위 혹은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이에 『靈樞·壽夭剛柔』의 ‘不表不裏’를 인체 內의 五臟六腑와 인체 外의 筋皮肉을 매개하여 陰陽 평형을 조절하는 膽을 비롯한 奇恒之腑의 영역으로까지 병이 깊어진 것으로 가정해 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氣를 위주로 하는 五臟六腑를 회복하도록 할 수 있으나 筋皮肉의 形을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며, 病者의 形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원래의 수명을 다 하지 못함을 뜻하니, 안면마비나 편신 또는 전신 마비를 동반하는 中風과 같은 병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현대 의학에서는 中風을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腦의 병변으로 보고 病巢인 腦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과적인 처치를 주

45) 王清任 著. 李占永, 岳雪蓮 校注. 醫林改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p.13-14. “腦髓說. 靈機記性不在心, 在腦一段, 本不當說, 縱然能說, 必不能行. 欲不說, 有許多病, 人不知源, 思至此, 又不得不說. 不但醫書論病, 言靈機發于心, 即儒家談道德, 言性理, 亦未有不言靈在中心者. 因始創之人, 不知心在腦中, 所辦何事. -중략- 氣之出入, 由心所過, 心乃出入氣之道路, 何能生靈機, 貯記性. 靈機記性在腦者, 因飲食生氣血, 長肌肉, 精汁之清者, 化而爲髓, 由脊骨上行入腦, 名曰腦髓. 盛腦髓者, 名曰髓海. 其上之骨, 名曰天靈蓋.”

46) 李漢 原著. 申應植, 李爽求 譯注. 星湖僊說類選. 서울. 探求堂. 1974. pp.146-147. “힘줄은 뇌에 매여 있어 두루 낙(絡)을 돌아다니니 이로써 뇌가 한 몸의 주장이 되는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힘줄의 힘은 가히 온 몸을 움직여 주니 그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 뇌에 모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한 각(覺)자를 더했기 때문에 유가(儒家)의 학설과 같지 않다. 그러나 살은 힘줄에 연하고 힘줄은 살에 매여 있는데 밖의 물건이 살에 접촉되면 살이 문득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힘줄이 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요, 뇌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접촉되었을 때 생 각할 필요가 없이 문득 움직이는 것은 뇌가 시켜서 그런 것이요. 물건이 접촉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심장이다. 그러면 감각하는 것은 뇌에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은 심장에 있다는 것이 그 이치가 또한 마땅할 것이다. <醫藥>”

47) 최한기 원저. 국역 신기천험 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p.18. “凡論腦主知覺者, 多不究明乎腦質之固有是能, 乃以靈魂神明等說, 牽合傳會, 可見其人腦質之有欠.”

로 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五臟六腑에 귀속하는 辨證施治의 방법으로 주로 다스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腦와 膽, 髓, 骨, 脈 등 奇恒之腑의 병변으로도 인식하고, 五臟六腑의 氣와 皮肉筋의 形을 매개하는 奇恒之腑의 기능을 조절하는 治法을 함께 시행한다면 中風처럼 臟腑와 형태가 모두 상한 重病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대처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膽의 경우 筋會인 陽陵泉이나 髓會인 絕骨 뿐 아니라 懸鍾, 臨泣 등 穴에 자침하거나 灸, 전기 자극 등의 治法을 시행함으로써 臟腑와 형태 사이에 단절된 연결을 매개하고 촉진하여 臟腑 辨證 治法만 시행했을 때보다 더욱 좋은 임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女子胞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태를 복제하여 놓은 精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매달 진행되는 月事를 통하여 이 精을 숙성시키거나 배출하고 또 때로는 陰陽이 모두 갖추어진 온전한 精을 완성하여 제3의 형태로 발생시켜 출산한다. 뿐만 아니라 五臟六腑의 氣를 여성성 또는 남성성의 특징을 발현하는 형태로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女子胞 역시 先後天을 막론하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바탕이 되며, 五臟六腑의 氣와 筋皮肉의 形을 매개하여 조절한다는 奇恒之腑의 분류기준 및 생리적 특성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관련성

1) 奇經八脈은 奇恒之腑가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기능을 지원한다.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은 모두 그 명칭에 ‘奇’자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臟腑 및 經脈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짐을 그 존재 근거로 삼는다. 즉 奇恒之腑는 五臟六腑와 구분되는 생리적 특성을 인식하고자 설정된 개념이며 奇經八脈은 十二經脈과 구분되는 생리적 특성을 인식하고자 설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奇恒之腑’라는 용어는 醫學史 상 『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에 처음 나오며, 그 생리적 특성은 앞에서 고찰한 바 그 자신은 감추어져 있으면서 인체가 형

태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며, 동시에 五臟六腑의 氣와 筋皮肉의 形을 연결하여 매개하고 양자 간의 陰陽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납할 수 있었다.

奇經八脈은 任脈과 督脈, 衝脈, 陰陽蹻脈, 陰陽維脈의 여덟 脈을 말한다. 이 여덟 脈을 ‘奇經八脈’이라는 용어로 묶어서 인식하고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이라고 하여 十二經脈과 구별되는 인체 내 위상을 부여한 내용은 醫學史 상 『難經』에 처음 나온다.⁴⁸⁾ 『黃帝內經』에서는 『靈樞·脈度』「五十營」營氣 내용 중 28맥으로 구성된 十二經脈의 순환체계 내에 督脈, 任脈, 蹻脈의 구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⁴⁹⁾ 그러므로 奇經八脈의 체계가 十二經脈의 체계 밖에 있어서 十二經脈의 經脈循環으로 조절되거나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는 『難經·二十七難』의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은 『黃帝內經』의 경맥순환 체계와 모순되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또한 『黃帝內經』에 督脈의 유주노선은 『素問·骨空論』⁵¹⁾과 『靈樞·營氣』⁵²⁾에 자세히 기술되었고, 任脈의 유주경로는 『素問·骨空論』⁵³⁾과 『靈樞·五

48)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25.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 何也? 然有陽維, 有陰維, 有陽蹻, 有陰蹻, 有衝, 有督, 有任, 有帶之脈. 凡此八脈者, 皆不拘於經, 故曰奇經八脈也. 經有十二, 絡有十五, 凡二十七氣, 相隨上下, 何獨不拘於經也? 然. 聖人圖設溝渠, 通利水道, 以備不然. 天雨降下, 溝渠溢滿, 當此之時, 霧霈妄作, 聖人不能復圖也. 此絡脈滿溢, 諸經不能復拘也.”

49) 柳姪我, 丁彰枝.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p.73-74.

50) 柳姪我, 丁彰枝.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74.

5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09. “督脈者, 起於少腹, 以下骨中央, 女子入繫廷孔, 其孔溺孔之端也, 其絡循陰器, 合篡間, 繞篡後, 別繞臀, 至少陰與巨陽, 中絡者, 合少陰,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起於目內眥, 上額交巔, 上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俠脊抵腰中, 入循脊絡腎. 其男子循莖下至篡, 與女子等. 其少腹直上者, 貫齊中央, 上貫心, 入喉上頤, 環唇上繫兩目之下中央. 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瘡痔遺溺陰乾.”

5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3. “其支別者, 上額, 循巔, 下項中, 循脊, 入臍, 是督脈也.”

5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

音五味』⁵⁴⁾에 기술되었으며, 衝脈의 유주경로는 『素問·骨空論』⁵⁵⁾과 『素問·痿論』⁵⁶⁾, 『靈樞·逆順肥瘦』⁵⁷⁾, 『靈樞·動脈』⁵⁸⁾, 『靈樞·五音五味』⁵⁹⁾에 자세히 기술되었고, 蹻脈의 유주경로는 『靈樞·脈度』⁶⁰⁾, 『靈樞·寒熱病』⁶¹⁾에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帶脈과 陰陽維脈은 그 노선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각각 陽維脈과 陰維脈의 基源으로 보이는 『素問·刺腰痛論』의 陽維之脈과 飛陽之脈은 유주노선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맥동 구간(a

section of pulse)’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⁶²⁾

그러나 『黃帝內經』에는 『素問·評熱病論』⁶³⁾에 나오는 胞脈, 『素問·奇病論』⁶⁴⁾에 나오는 胞絡脈, 『靈樞·憂恚無言』⁶⁵⁾에 나오는 會厭之脈, 『靈樞·百病始生』⁶⁶⁾과 『靈樞·歲露論』⁶⁷⁾에 나오는 伏衝之脈, 『素問·瘧論』⁶⁸⁾에 나오는 伏膺之脈 같은 五臟六腑와 獨점적인 屬絡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胞宮, 會厭, 脊柱 등 인체 특정부위의 기능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한 脈들에 대한 서술이 보인다. 이들 특수 脈의

- 院 出版部. 1981. p.209.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上頤循面入目.”
- 5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 上行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濁盛則澹滲皮膚, 生毫毛.”
- 5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09.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
- 5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6.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竅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 5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89. “黃帝曰, 少陰之脈獨下行, 何也. 岐伯曰, 不然, 夫衝脈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稟焉. 其上者, 出于頰頰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肝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出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故別絡結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 5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67. “岐伯曰,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并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 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 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 5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 上行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濁盛則澹滲皮膚, 生毫毛.”
- 6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5. “蹻脈者, 少陰之別, 起於然骨之後, 上內踝之上, 直上循陰股, 入陰, 上循胸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入頰, 屬目內眥, 合於太陽.”
- 6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0. “足陽明有挾鼻入於面者, 名曰懸顛. 屬口對入繫目本, 視有過者取之. 損有餘, 益部足, 反者益.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眥骨,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

- 62) 柳姪我, 丁彰炫.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78.
- 6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24.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屬心而絡於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也.”
- 6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76. “黃帝問曰, 人有重身, 九月而瘳, 此爲何也. 岐伯對曰, 胞之絡脈絕也. 帝曰, 何以言之. 岐伯曰, 胞絡者, 繫於腎, 少陰之脈, 貫腎繫舌本, 故不能言.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無治也, 當十月復.”
- 6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95. “會厭者, 音聲之戶也. 一중략- 是故厭小而疾薄, 則發氣疾, 其開闔利, 其出氣易, 其厭大而厚, 則開闔難, 其氣出遲, 故重言也. 人卒然無音者, 寒氣客於厭, 則厭不能發, 發不能下至, 其開闔不致, 故無音. 黃帝曰, 刺之奈何. 岐伯曰, 足之少陰, 上繫於舌, 絡於橫骨, 終於會厭, 兩瀉其血脈, 濁氣乃辟. 會厭之脈, 上絡任脈, 取之天突, 其厭乃發也.”
- 6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6. “是故虛邪之中人也, 始於皮膚, 皮膚緩則腠理開, 開則邪從毛髮入, 入則抵深, 深則毛髮立, 毛髮立則漸然, 故皮膚痛. 留而不去, 則傳舍於絡脈, 在絡之時, 痛於肌肉, 其痛之時息, 大經乃代. 留而不去, 傳舍於經, 在經之時, 洒淅喜驚, 留而不去, 傳舍於輸, 在輸之時, 六經不通四肢, 則肢節痛, 腰脊乃強. 留而不去, 傳舍於伏衝之脈, 在伏衝之時, 體重身痛. 留而不去, 傳舍於腸胃, 在腸胃之時, 真響腹脹, 多寒則腸鳴飧泄, 食不化, 多熱則漉出糜. 留而不去, 傳舍於腸胃之外, 募原之間, 留著於脈, 稽留而不去, 息而成積, 或者孫脈, 或者絡脈, 或者經脈, 或者輸脈, 或者於伏衝之脈, 或者於膺脈, 或者於腸胃之募原, 上連於緩筋, 邪氣淫泆, 不可勝論.”
- 6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38. “衛氣之行風府, 日下一節, 二十一日, 下至尾底, 二十二日, 入脊內, 注於伏衝之脈, 其行九日, 出於缺盆之中, 其氣上行, 故其病稍益.”
- 6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0. “其出於風府, 日下一節, 二十五日下至骶骨, 二十六日入於脊內, 注於伏膺之脈, 其氣上行, 九日出於缺盆之中, 其氣日高, 故作日益早也.”

유주노선은 胞宮, 會厭, 脊柱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이들 기관을 歸屬하고 滋養하는 心, 腎 등의 臟腑, 그리고 그 기능이 발현되는 형태에 걸쳐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督脈, 任脈, 衝脈, 驕脈의 유주노선과 겹치는 바가 많다.⁶⁹⁾ 따라서 이들 脈을 奇經八脈의 基源이 되는 脈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 脈과 이들 脈이 그 기능을 지원하는 胞宮, 會厭, 脊柱 등 기관 사이의 관계로부터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의 관계를 유추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⁷⁰⁾ 즉 奇經八脈은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의 奇恒之腑가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에 대한 天癸의 작용

任脈, 衝脈, 督脈은 모두 胞宮과 생식기에서 起始할 뿐 아니라 기능상으로도 여자의 月事와 임신, 출산, 산후 및 남자의 수염 발생, 宗筋의 기능여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⁷¹⁾⁷²⁾⁷³⁾ 帶脈 또한 자궁이 수행하는 生殖 기능을 긴밀하게 지지하고 있다.⁷⁴⁾⁷⁵⁾ 그런데 任脈, 督脈, 衝脈 및 帶脈의 奇經脈

들이 女子胞를 비롯한 奇恒之腑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에는 腎臟 등 관련 臟腑 외에 '天癸'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天癸에 대해서는 『素問·上古天真論』에

여자가 14세에 天癸가 이르면 任脈이 통하고 太衝脈이 성하여 月事가 때로 내려오므로 자식을 들 수 있습니다. -중략- 49세에 任脈이 허하고 太衝脈이 쇠하여 적어지며 天癸가 다하여 地道가 통하지 않으므로 형이 허물어지고 자식을 들 수 없습니다.

장부가 16세에 腎氣가 盛하여 天癸가 이르면 精氣를 넘쳐 쏟아 陰陽이 화합하므로 능히 자식을 들 수 있습니다. -중략- 56세에 肝氣가 쇠하여 筋을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天癸가 다하고 精이 적어지며 腎臟이 쇠하여 形과 體가 모두 다합니다.⁷⁶⁾

라고 하여, 사람 生殖기능의 발현과 쇠퇴 및 筋骨의 形이 허물어지는 데에 天癸가 작용한다는 기술이 있다. 이에 역대의 『內經』 주석가들이 天癸에 대한 다양한 주석을 남겼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天癸가 사람의 생식 및 수명을 관장하는 先天의 기운과 관련된다는 것이다.⁷⁷⁾ 일례로 王冰의 注釋을 보면,

69) 柳疔我, 丁彰枝.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80.

70) 이것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인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에 상세히 논하였다. 柳疔我, 丁彰枝.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p.78-81.

7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1.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중략-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72) 楊鑿冰. 淺議女性生殖藏象“子宮”的生理特性. 陝西中醫學院學報. 2007. 30(1). p.6. “子宮既不同于五臟, 亦不盡同于六腑, 所以稱爲奇恒之腑,” p.7. “而子宮的氣血調和, 精氣充實, 又與腎氣旺盛, 天癸成熟, 任脈之氣通暢, 衝脈之血充盈密切相關, 只有保持子宮精氣充實, 氣血調和, 才能使月經通暢, 泌泄帶液, 胎孕順利, 產後無恙的生理功能正常体现.”

7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3. “岐伯曰, 宦者去其宗筋, 傷其衝脈, 血瀉不復, 皮膚內結, 脣口不榮, 故鬚不生. 黃帝曰, 其有天宦者, 未嘗被傷, 不脫於血, 然其鬚不生, 其故何也. 岐伯曰, 此天地所不足也, 其任衝不盛, 宗筋不成, 有氣無血, 脣口不榮, 故鬚不生.”

74) 清 傅青主, 葉天士 原著. 新編 傅青主男女科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81. “蓋帶脈通於任督, 任督病而帶脈始病, 帶脈者, 所以約束胎之系也. 帶脈無力, 則難

以提繫, 必然胎胎不固. 故曰帶弱則胎易墜, 帶傷則胎下牢, 然而帶脈之傷, 非獨跌因挫氣已也. 或行房而放縱, 或飲酒而顛狂, 雖無疼痛之苦, 而有暗耗之害, 則氣不能化, 經水反變爲帶病矣. 故帶病者, 惟尼僧寡婦, 出嫁之女多有之, 而在室之女則少也.”

75) 姚石安. 試論奇經學說與女科. 中國醫藥學報. 1996. 11(3). p.15. “經孕產哺一系列的生命活動亦成爲正常女性的本能. 既然在結構上受衝任督帶的支持, 那麼, 這一系列的生理功能的正常進行一定也取決於這四條奇經的調控.”

7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1.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중략-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중략-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寫, 陰陽和, 故能有子, -중략-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 腎者主水, 受五臟六府之精而藏之, 故五臟盛, 乃能寫, 今五臟皆衰, 筋骨解墜,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 而無子耳. 帝曰, 有其年已老, 而有子者, 何也. 岐伯曰, 此其天壽過度, 氣脈常通, 而腎氣有餘也. 此雖有子. 男不過盡八八, 女不過盡七七, 而天地之精氣, 皆竭矣.”

癸는 壬癸를 이르니, 북방 水의 天干의 명칭이다. 任脈과 衝脈은 모두 奇經의 脈이다. 腎氣가 온전하고 盛하면 衝脈과 任脈이 흐르고 통하여 經血이 점차 채워져서 때에 응하여 내려오니, 天眞의 氣가 내려와서 더 불어 증가하므로 ‘天癸’라 이른다. 그러나 衝脈은 血海가 되고 任脈은 女子胞와 胎를 주관하니, 두 가지가 서로 도와야 능히 자식을 둘 수 있다. ‘月事’라고 이르는 까닭은 평하고 조화로운 기가 보통 30일에 한 번 보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시기가 어그러지는 경우를 ‘질병이 있음’으로 이른다.⁷⁸⁾

라고 하여, 여자의 生殖 기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腎氣의 성숙으로 任脈과 衝脈이 胞宮에 작용하고 血海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天眞之氣’의 하강 및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王冰의 주석에서 ‘天眞之氣’라고 표현한 것은 곧 ‘天癸’를 일컫는 말로, 사람이 태어날 때 天地로부터 받은 기운 즉 ‘先天的 기운’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天癸에 대해 ‘先天的 精氣’로 탄생과 함께 오며 腎臟 속에 간직되었다가 腎臟 精氣를 조성하는 일부분이 되며, 생식기능의 촉진, 2차 성징의 발현, 형태의 生長·強弱·老衰 등과 관련이 있으며, 衝任督帶脈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⁷⁹⁾ 또 현대 중의학에서는 “天癸는 先天的의 一氣가 화생한 癸水로서 인체의 성장발육 및

강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先天에 근원하여 先天의 精으로서 腎에 간직되나 後天 水穀精微의 자양을 받는다. 天癸가 이르거나 다하는 과정 중에 모두 胞宮에 작용하여 胞宮이 月經, 妊娠 등의 기능을 행하게 하며 인체의 生長發育과 生殖을 촉진하는 미량의 물질이다.”⁸⁰⁾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기존의 天癸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람 형태의 성장과 이차성징의 발현, 생식작용, 노쇠 등으로 天癸의 작용을 구분하였으나, 論者は 이들 사이에 공통점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이러한 작용들이 모두 사람의 형태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 형태의 발생과 성장, 남성 혹은 여성 형태의 발현, 자기 형태의 복제, 형태의 노쇠와 괴멸로 단어를 바꾸면 天癸의 작용을 형태 변화의 흐름으로 일관성 있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天癸의 작용을 사람 형태 변화의 흐름과 관련지어 인식하면, 天癸는 사람의 一生을 하나의 주기로 하는 시간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天癸는 인체로 하여금 一生을 하나의 주기로 하는 시간 흐름에 맞추어 형태 변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며, 그 구체적인 경로는 奇經八脈을 통하여 奇恒之腑에 작용함으로써 정해진 소임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때 奇經八脈은 天癸의 의도를 奇恒之腑에 전달하며, 奇恒之腑는 五臟六腑와 筋肉皮의 형태 사이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五臟六腑가 天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형태를 형성하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生-長-生殖-老-死는 宇宙를 비롯하여 생명을 가진 개체면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형태변화이니, 宇宙의 宿命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중의학에서는 天癸가 호르몬과 같은 物質인가 아니면 機能인가의 논란이 있지만, 天癸는 生-長-生殖-老-死라는 宇宙의 숙명을 사람이라는 개체에 강제하는 ‘一生을 한 단위로 하는 생

77) 許琪會, 李容範. 天癸에 대한 연구-『內經』 注釋家들의 見解를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0. 13(2). p.188. “역대 『內經』 注釋家들은 ‘天癸’를 남자의 ‘精氣滿溢’, 여자의 ‘月事以時下’의 전단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78) 王冰 編著. 高保衡 校. 補注黃帝內經素問(影印). 서울. 一中社. 1993. p.8. “癸謂壬癸, 北方水干名也. 任脈衝脈, 皆奇經脈也. 腎氣全盛, 衝任流通, 經血漸盈, 應時以下, 天眞之氣降, 與之從事, 故云天癸也. 然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者相資, 故能有子, 所以謂之月事者, 平和之氣, 常以三旬而一見也. 故愆期者, 謂之有疾.”

7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北京. 北京出版社. pp.1030-1032.

80) 劉陽, 吳效科. 論天癸與生長發育及妊娠的關係. 遼寧中醫雜誌. 2009. 36(4). p.544. “天癸是先天之一氣所化生的癸水, 後而又更加明確指出天癸是肉眼看不到的而又客觀存在的一種微量的體液, 天癸與人體的生長發育及強弱有着密切的關係. 中醫認爲天癸源於先天, 爲先天之精, 藏於腎, 受後天水穀精微的滋養. 在天癸至與竭的過程中始終作用於胞宮, 促使胞宮行經, 胎孕功能, 是促進人體生長發育和生殖的物質.”

체시계(Biological Clock)'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사료된다.

3) 奇經八脈의 形態에 대한 작용

奇經八脈 중 任脈, 督脈, 衝脈은 모두 인체의 左右 대칭 중심축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명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체가 左右 대칭을 이루는 것은 중력에 맞서서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⁸¹⁾⁸²⁾ 자연계에서 左右 대칭의 형태를 이루는 생물은 그렇지 않은 생물에 비해서 개체의 독립성 및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한다.⁸³⁾⁸⁴⁾ 반면 형태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氣의 변화는 左右 대칭이 아닌 左右 편차를 지향한다. 左右의 힘이 균형을 유지할 경우 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개체의 내부에서 변화가 진행되지 않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체에서 五臟六腑는 左右 비대칭으로 벌려 있으면서 힘의 편차를 발생시켜 君主之官인 心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순환운동을 한다. 이 때 十二經脈은 五臟六腑에서 발생시키는 편차를 먼 힘이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데, 左右 대칭적으로 벌려 있으면서 五臟六腑와 형태를 매개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된다. 즉 脈은 五臟六腑의 하부구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臟腑와 형태를 매개하는 奇恒之腑이기도 하므로, 五臟六腑에서 발생시키는 편차를 먼 힘의 이동 통로가 되면서도 左右 대칭의 구조를 취하여, 그 힘을 형태에 전달할 때에는 五臟六腑에서 발생시킨 左右 힘의 편차를 완화시키게 된다. 반면 衝任督脈 등 奇經八脈과 腦, 脊骨, 脊髓, 女子胞 등의 奇恒之腑는 인체 형태의 左右 중심축에 위치하여 天癸의 요구를 五臟六腑에 전달하고, 五臟六腑가 형태를 歸屬하고 자양하는 작용을 매개한다. 奇經八脈 중 陰陽蹻脈과 陰陽維脈 및 奇恒之腑 중 膽은 모두 인체 형태의 左右 중심축이 아닌 다리와 몸통 側面的 중심축 또는

上下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膽은 특히 帶脈의 유주 노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⁸⁵⁾⁸⁶⁾⁸⁷⁾ 이들은 인체 側面的 중심축 또는 上下 중심축에서 형태를 관장함으로써 左右 중심축에 있는 주요 奇經八脈 및 奇恒之腑들의 방향성을 사지와 몸통 측면의 변방에까지 전달하고, 동시에 이들 사지와 몸통 측면 변방의 상황을 左右 중심축에 있는 주요 奇經八脈 및 奇恒之腑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膽과 帶脈, 陰陽維脈, 陰陽蹻脈이 인체의 형태를 남김없이 묶어 중심축에 있는 주요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이유는 물론 인체의 左右대칭 형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그러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五臟六腑의 일상적인 형태 滋養 시에 左右 힘의 편차가 左右 대칭의 형태를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함은 물론, 특히 天癸의 요구를 받아 형태의 生-長-生殖-老-死 변화를 수행해 갈 때에도 일정 범위 내로 형태의 左右 대칭이 유지되도록 한다. 일생 단위의 형태변화 과정 중에 左右대칭 형태가 무너지면 개체의 독립성과 운동성이 크게 훼손되고, 그런 경우 결국 형태의 조기 괴멸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85) 安樂基 編著,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91, p.572. “足少陽膽經의 帶脈 穴은 帶脈의 중요한 起始部이면서 足少陽膽經과 帶脈의 交會穴이다.” p.576. “足少陽膽經의 維道 穴은 足少陽膽經과 帶脈이 交會하는 곳이다.” p.574. “足少陽膽經의 五樞 穴은 膽經과 帶脈이 交會하는 곳이다.” p.597. “足臨泣 穴은 足少陽經의 輸穴로 八脈交會穴의 하나이며 帶脈으로 통한다.”

86) 李時珍이 『奇經八脈考』에서 제시한 帶脈의 8穴 중 6穴이 足少陽膽經의 帶脈, 五樞, 維道 穴이며, 帶脈의 八脈交會穴 또한 足少陽膽經의 足臨泣 穴이다. 李時珍, 奇經八脈考, 史世勤, 賀昌木 主編, 李時珍全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p.3652. “帶脈者, 起於季脅足厥陰之章門穴, 同足少陽循帶脈穴(章門, 足厥陰少陽之會, 在季肋骨端, 肘尖盡處是穴. 帶脈穴屬足少陽經, 在季脅下一寸八分陷中, 圍身一周, 如束帶然. 又與足少陽會於五樞(帶脈下三寸), 維道(章門下五寸三分), 凡八穴.”

87) 滑壽가 『十四經發揮』에서 제시한 帶脈의 脈氣所發穴은 足少陽膽經의 帶脈과 維道の 4穴이다. 滑伯仁 著, 承澹齋 校註, 校註十四經發揮, 上海衛生出版社, 1955(未詳), p.81. “帶脈者 起於季脇, 回身一周. 其爲病也, 腰腹縱容, 如囊水之狀. 其脈氣所發, 在季脇下一寸八分, 正名帶脈, 以其回身一周如帶也, 又與足少陽會於維道, 此帶脈所發, 凡四穴.”

81) 김창환. 생명력의 과학. 서울. 지성사. 2003. p.129.

82) George B. Johnson 저. 전병학, 계명찬, 김애리 외 18인 공역. 생명과학. 과주. 동화기술. 2007. p.336.

83) 박문호 저. 뇌 생각의 출현. 서울. 휴머니스트. 2008. p.58.

84) 김창환. 생명력의 과학. 서울. 지성사. 2003. p.129.

형태는 성장하고 번식하고 줄어드는 증감이 있고, 인체는 그 증감의 시기에도 예외 없이 중력에 맞서서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奇經八脈은 신체의 성장과 생식, 노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사람의 형태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일까지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素問·上古天真論』에는 天癸가 이르거나 다함으로써 사람이 생식능력을 가지거나 노쇠하게 된다고 하여, 사람의 生-長-生殖-老-死가 天癸에 의해 주관됨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奇經八脈의 기능은 이 天癸의 작용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道家의 煉丹術은 奇經八脈의 이러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나이를 먹어도 사람의 형태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⁸⁸⁾ 신체를 가지는 생명들의 수명은 곧 그 형체의 수명이므로, 사람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는 기능은 사람의 수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과도 직결되어 있다. 또한 자신과 동일한 형태를 복제하여 남겨두는 것이 형체유지의 또 다른 방법이 되니, 奇經八脈의 작용은 생식능력의 보존 및 발휘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III. 考察 및 結論

1.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은 모두 그 명칭에 ‘奇’자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臟腑 및 經脈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짐을 그 존재 근거로 삼는다. 즉 奇恒之腑는 五臟六腑와 구분되는 생리적 특성을 인식하고자 설정된 개념이며 奇經八脈은 十二經脈과 구분되는 생리적 특성을 인식하고자 설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奇恒之腑’라는 용어는 醫學史 상 『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에 처음 나오며, 그 분류기준 및 생리

적 특성은 “그 자신은 감추어져 있으면서 인체가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며, 동시에 五臟六腑의 氣와 筋皮肉의 形을 연결하여 매개하고 양자 간의 陰陽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납할 수 있었다.

3. 任脈과 督脈, 衝脈, 陰陽蹻脈, 陰陽維脈의 여덟脈을 ‘奇經八脈’이라는 용어로 묶어서 인식하고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이라고 하여 十二經脈과 구별되는 인체 내 위상을 부여한 것은 醫學史 상 『難經』에 처음 나온다. 『黃帝內經』에 나오는 督脈, 任脈, 衝脈, 陰陽蹻脈, 帶脈, 陽維之脈, 飛陽之脈 및 胞脈, 胞絡脈, 會厭之脈, 伏衝之脈, 伏膂之脈 등 五臟六腑와 독립적인 屬絡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奇經八脈의 基源이 되는 脈들이 胞宮, 會厭, 脊柱 등 기관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奇經八脈은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의 奇恒之腑가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기능을 지원”한다는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다.

4. 任脈, 督脈, 衝脈 및 帶脈의 奇經脈들이 女子胞를 비롯한 奇恒之腑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에는 ‘天癸’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天癸는 사람 형태의 성장과 이차성징의 발현, 生殖, 老衰 등에 작용하는데, 이는 모두 사람의 형태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天癸는 인체로 하여금 一生을 하나의 주기로 하는 시간 흐름에 맞추어 형태 변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며, 그 구체적인 경로는 奇經八脈을 통하여 奇恒之腑에 작용함으로써 정해진 소임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사람의 신체는 중력에 대항하여 그 형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左右 대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左右 대칭의 형태 내부에서는 五臟 氣의 左右 편차로부터 힘의 발생과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奇經八脈과 奇恒之腑는 모두 사람의 형태가 左右 대칭을 유지하도록 작용하여 개체의 독립성과 운동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작용은 生-長-生殖-老-死라는 형태의 변화 과정에서도 지속된다.

6.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은 인체의 형태 발생과 유지, 생식, 노화, 수명 등 先天 및 後天 과정에 상호 협력하여 五臟의 氣와 筋骨皮의 形을 매개하고

88) 金京煥, 金慶鎬, 尹鍾和, 金甲成. 氣功의 周天功과 奇經八脈에 關한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5. 12(2). p.272. “道家에서는 奇經八脈의 意義는 奇經八脈이 平素에는 閉而不開한 음적상태이나, 修練을 통할 때 陽氣가 沖開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陽氣가 沖開할 때의 작용에 대해서는 ‘身體康強, 容顏返壯’ 등이라고 漠然하게 설명하였다. 즉, 奇經八脈이 人身의 主라 하였고, 특히 任督衝脈의 重要性을 강조하였으며, 陰蹻를 氣修練에 있어 우선한다고 하였다.”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사람의 형태, 일생 단위의 시간 흐름, 매개와 조절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귀납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본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설계·시행·유지·보수하는 인체의 매우 특수한 기능으로서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이 인체 내부에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변화기능과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感謝의 말씀

본 연구는 2012년도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임.(KHU-20131355)

參考文獻

<논문>

1. 方芳. 奇恒之腑의 歷史文獻及理論文化研究. 黑龍江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p.60.
2. 張覺人, 丁念, 代鐵柱, 梁永凱, 從澤偉. 腦作爲奇恒之腑生理特性的再思考. 遼寧中醫雜誌. 2009. 36(4). p.543, 544.
3. 吳華強. “奇恒之腑”質疑. 安徽中醫臨床雜誌. 2002. 14(3). p.206.
4. 王啓才. 奇經八脈의 命名, 功能和特性. 南京中醫學院學報. 1988. 1. p.34, 35, 36.
5. 尹鍾和. 奇經八脈에 關한 研究. 동서의학. 1991. 16(4). p.53.
6. 張效霞, 楊慶臣. 奇恒之腑考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3. 26(1). p.23.
7. 徐愛良, 王春榮, 嚴喧喧. 論奇恒之腑辨證. 湖南中醫藥大學學報. 2013. 33(1). p.57.
8. 柳姪我, 丁彰炫.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74, 78, 80. pp.73-74, 78-81.
9. 楊鑿冰. 淺議女性生殖藏象“子宮”的生理特性. 陝西中醫學院學報. 2007. 30(1). p.6, 7.
10. 姚石安. 試論奇經學說與女科. 中國醫藥學報. 1996. 11(3). p.15.
11. 許琪會, 李容範. 天癸에 대한 연구-『內經』注釋家들의 見解를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0. 13(2). p.188.

12. 劉陽, 吳效科. 論天癸與生長發育及妊娠的關係. 遼寧中醫雜誌. 2009. 36(4). p.544.
13. 金京煥, 金慶鎬, 尹鍾和, 金甲成. 氣功의 周天功와 奇經八脈에 關한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5. 12(2). p.272.

<단행본>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1, 24, 37, 39, 42, 124, 140, 166, 176, 209, 311. pp.36-37.
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57, 82, 113, 115, 130, 174, 189, 215, 267, 282, 283, 286, 295, 338.
3. 王冰 編著. 高保衡 校. 補注黃帝內經素問(影印). 서울. 一中社. 1993. p.8, 39, 254.
4.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75.
5. 山東中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240.
6. 洪元植 監修. 朴贊國 著.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上.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p.176-177.
7.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25, 532.
8.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影印). 서울. 一中社. 1992. pp.53-58.
9. 滑伯仁 著. 承澹齋 校註. 校註十四經發揮. 上海衛生出版社. 1955(未詳). p.81. pp.75-81.
10. 李時珍. 奇經八脈考. 史世勤, 賀昌木 主編. 李時珍全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p.3652. pp.3625-3660.
11. 清 葉天士 著. 徐靈胎 評. 臨證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672, 677, 690.
12. 清 傅青主, 葉天士 原著. 新編 傅青主男女科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81.
13. 王清任 著. 李占永, 岳雪蓮 校注. 醫林改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p.13-14.

14. 李灝 原著. 申應植, 李奭求 譯注. 星湖僿說類選. 서울. 探求堂. 1974. pp.146-147.
15. 최한기 원저. 국역 신기천험 I. 대전. 한국한의 학연구원. 2008. p.18.
16. 朴贊國 譯. 藏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113.
17. Cecie Starr, Ralph Taggart, Christine Evers 의 1인 공저. 고병문, 김경식, 김무열 외 14인 공역. (Starr) 생명과학 :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 서울. 월드사이언스. 2012. pp.772-773.
18. 강성구, 강신성, 백상기 외 5인 공저. 인체생물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2004. p.277.
19.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최철한 외 5인 옮김. 對譯 東醫寶鑑. 경남 하동군 화개면.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351.
20.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北京. 北京出版社. pp.1030-1032.
21. 김창환. 생명력의 과학. 서울. 지성사. 2003. p.129.
22. George B. Johnson 저. 진병학, 계명찬, 김에리 외 18인 공역. 생명과학. 파주. 동화기술. 2007. p.336.
23. 박문호 저. 뇌 생각의 출현. 서울. 휴머니스트. 2008. p.58.
24. 安榮基 編著.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91. p.572, 574, 576, 597.